8. 율곡의 문묘 출향과 송시열의 사망

임금이 서인과 송시열을 배척한 것을 기회로 남인들은 송시열을 비난하고 율곡과 우계의 문묘 배향을 철회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원성(原城, 강원도 원주)의 유학자 안전(安瑔)은 "송시열의 세 가지 큰 죄는, 기해년(1659년, 현종 즉위년)의 대상(大喪)에 군부(君父, 임금의 아버지)를 폄하하여 끌어내린 것이 첫 번째이고, 전하의 탄생 때에 하례(賀禮)를 저지한 것이 두 번째이며, 원자(元子, 임금의 장남)의 명호를 정할 적에 나라의 근본을 동요시킨 것이 세 번째입니다."(『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2월 22일조)라고 주장하며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동시에 율곡이 불효(不孝)하고 성혼이 불충(不忠)한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묘 배향에서 내치기를 요청했다. 숙종은 이에 대해서 율곡 등을 "출향(黜享)하기를 청하는 것은 의견이 없지 않으나, 경솔히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송시열이 음흉한 것은 내가 진실로 환히 알고 있으나, 법으로 다스리자는 의논은 너무 지나친 것인 줄로 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소문에 대해 진사 홍만적(洪萬迪)등이 3월 3일에 안전(安瑔)의 주장을 반박하고 율곡과 우계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은 이를 배척하고, 물리치게 하였다. 이러한 홍만적의 상소를 비판하는 상소가 3월 12일에 또 올라왔다. 진사 이현령(李玄齡) 등은 율곡의 글 가운데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데 관계된 것이 많고 말을 가리지 않고 경솔하게 윗사람을 범하였다고 하며 우계 성혼과 함께 문묘에서 내치기를 청했다. 숙종은 "많은 선비들의 논란이 비록 이와 같더라도 출향(黜享)만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아무리 성격이 급한 숙종이라도 자신이 한번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현령 등은 또다시 상소문을 올렸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3월 14일에 대사간 권해(權瑎)와 헌납 이현조(李玄祚)도 율곡과 우계의 문묘 출향을 요청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보다 3일 뒤인 3월 17일에는 진사 심제현(沈齊賢)이 율곡을 옹호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승정원에서는 "이이의 아비가 일찍이 첩에게 미혹되어, 이이를 잘 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이가 곧장 사찰로 도망해 들어가 법명을 의암(義庵)이라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찍이 성현(聖賢)의 정신을 회복한 성과가 없고, 붕당을 세워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어진 재상을 배척하여 간신을 보호하였으니, 어찌 종사(從祀)하는 의식에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성혼은 또 이이에게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비판하였다. 남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이미 이렇게 바뀐 것이다.

숙종은 이에 "심제현 등이 지극히 무엄(無嚴)함을 그대들이 명쾌히 변별하니, 나도 심히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숙종은 다음과 같이 율곡과 우계의 문묘종사를 후회하는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양신(兩臣, 율곡과 우계)은 국가의 제사를 받는 반열에 오를 수 없는데, 나 때문에 성묘(聖廟, 공자를 모신 사당 즉 문묘)를 더럽혔으니, 지금 돌이켜 보건대 후회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중략) 심제현은 소인의 무리로 감히 간사하고 난잡한 말로 임금을 비방하여 나의 마음에 주장함이 없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국가를 경멸하고 모욕하며 달가운 마음으로 당파를 비호하는 상황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심제현을 유배형에 처하라."

임금의 이러한 의중을 확인한 남인 관료들은 율곡 등의 문묘 출향을 건의했다. 조정은 이미 남인이 장악한 상태였고 다음날(3월 18일) 결국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위판을 문묘로부터 축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써 서울의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 봉안되어 있던 두 사람의 위판(位版)은 축출되었고 제사도 폐지되었다.

율곡과 우계의 위판이 문묘에서 제거된 다음 달 윤 3월 28일(1689년 15년)에는 송시열과 김수항을 처형해 달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은 조정의 판서, 참판 등 2품 이상의 관리(卿宰)들이었다. 사관은 그동안 아무리 큰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2품 이상의 관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 일은 없었는데 '어진이를 장살(戕殺)하는데 급급하여 처음'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건의에 대해 숙종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삼사(三司)의 의논과 공경(公卿,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즉 고위 관료)의 요청이 이에 이르렀는데, 김수항의 가득 찬 죄는 왕법으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참작하여 사사(賜死)한다. 송시열이 지은 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엄하게 천극(栫棘, 유배지 거처 주위를 가시울타리로 둘러싸는 위리안치圍籬安置의 형벌)을 가하여 간사한 마음을 끊게 하였는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이 무엇이겠는가?"

영의정까지 지낸 김수항을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김수항은 진도에서 귀양 살고 있었다. 그는 사사(賜死)의 명을 전해 듣고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전하고 조용히 사망했다.
율곡과 우계의 문묘 철향 소식을 전해 들은 각지의 유생과 관리들은 크게 상심하였다. 일부 관리들은 병들었다고 핑계하고 관청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숙종은 그런 관리들을 잡아다 철저히 사실조사를 하라고 명을 내렸다. 청풍 부사(淸風府使) 오도일(吳道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오윤겸이 성혼에게서 배웠는데 성혼의 문묘 철향을 외면하여 주위 선비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4월 12일) 4월 21일에도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응교(應敎) 이식(李湜),(·)지평(持平) 정선명(鄭善鳴) 등 관리들이 송시열을 불러다 국문해서 빨리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며칠 전 새롭게 정언으로 임명된 성관(成瓘)은 임금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송시열과 홍치상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과 선후(先后, 선대의 왕후)의 신령(神靈)을 위로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하께서도 천하 후세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강경하게 송시열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다른 관리들도 송시열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발언이 이어졌으나 숙종은 반응하지 않았다. 성관이 송시열과 같이 언급한 홍치상은 후궁 영빈 김씨의 이모부였는데 다음날 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교형(絞刑)에 처해졌다. 이때 송시열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제주도에서 위리안치의 유배형을 받고 있었다.
4월 24일, 숙종은 후궁 영빈 김씨를 폐출하는 비망기를 내렸다. 영빈 김씨의 할아버지 김

수증은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과 김수흥의 친형이다.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던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씨는 궁궐에 들어온 뒤로 조금도 공경하고 순박한 행실이 없었고 해괴하게 질투만을 일삼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밖으로는 김수항(金壽恒) 및 주가(主家, 김수증)와 서로 연락하고 호응하여 임금의 동정(動靜)을 살폈으므로 궁중의 모든 일이 누설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신하들을 불러서 면담했을 적에 한 말을 적어 놓은 메모지를 훔쳐 몰래 보고 나서는 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누차 힐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도로 바쳤다. 정말 마음이 음흉하여 실로 헤아리기가 어렵다. 안으로는 교사스럽기 간특한 부인에게 주야로 아첨하여 혈당(血黨)을 맺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는가 하면, 국가를 교란시키기 위해 군상(君上, 임금)을 무함했으니 실로 패역 부도(悖逆不道)한 죄과를 범한 것이다. 당연히 중법(重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우선 너그러운 법을 따라 작호(爵號)를 환수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폐출(廢黜)시킨 것이니, 그대들은 알라."

이러한 조치는 송시열과 김수항 등 서인의 축출과도 관련되는데 왕비인 인현왕후의 폐위 처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당일 숙종은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왕비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내가 이제 모두 말하겠다. 그(인현왕후)가 선왕(先王, 현종)과 선후(先后, 명성왕후)의 분부를 가탁하여 한 말은 실로 총애를 독점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인데, 원자(元子, 큰 왕자)가 탄생하자 그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모(國母)가 된 몸으로 간사하고 사특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경들은 매양 '한때의 조그만 잘못이니 끝내는 반드시 감화될 것이다.'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삼사(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가 급히 면담을 요청했을 때 홍치상(洪致祥)과 송시열(宋時烈) 등을 법으로 다스려달라는 요청에 따르면서 은밀히 (인현왕후에게) 그 단서를 이야기했고, 또 어제도 (생일 축하) 문안 인사를 받지 말라고 했었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인현왕후 본인도) 송구스러워 불안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징계받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끝내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 문득 성난 말로 '진실로 나의 죄다. 어찌할 것인가? 폐출(廢黜)시키려면 폐출시켜라.' 하였다. 왕비의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인형왕후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신하들에게 털어놓은 숙종은 "(인현왕후가) 이름이 국모였지 실제로는 그런 덕이 없는데도 국모로 대우할 수가 있겠는가? …… 이런 사람(왕비)을 오장 육부(五臟六腑)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왕비는 정궁(正宮)에 살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할 적에도 반드시 그 관명(官名)을 일컬으면서 전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잡류(雜類)들이 궁중에 모여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말 못 할 말을 가리지 않고 지탄 없이 왕비의 흉을 봤다.

결국 숙종 15년(1689년) 5월 2일 왕비 인현왕후 민씨는 폐비의 처분을 받았다. 임금은 그것도 부족하여 비망기에 "오늘날 민씨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씨(성

종의 전부인 폐비 윤씨)보다 더하고, 윤씨에게 없었던 행동까지 겸하였으며, 선왕(先王, 현종)·선비(先妃, 명성왕후)의 하교를 지어 내어 종사에 죄를 얻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에 대해 사관은 같은 날짜 기록에서 임금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삼가 살펴보건대, 중궁(中宮, 인현왕후)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안으로는 후궁의 질투와 이간이 있었고, 밖으로는 간신의 부추김이 있어서, 위험이 핍박하는 변고에 빠져 폐출되는 액운을 당하였다. 임금이 (희빈 장씨에 대한) 총애에 치우치고 분노에 과격하여, 잘못을 크게 드러내 그 죄를 만드는 것에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왕비의 행실과 언어에 일찍이 한 가지 일도 지적해 낼 만한 잘못은 없었으니,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비에게 결함이 없음을 더욱 소상히 알았다."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폐출하고 그 부모의 봉작도 빼앗았다. 이에 대해 서인 측은 오두인·박태보 등이 상소를 올렸지만, 주동자들이 국문을 당하여 위리안치되거나 귀양을 갔으며, 오두인과 박태보는 사망하기도 했다.

궁중 내부에서 숙빈 최씨나 인현왕후 등 서인과 관련된 인사들을 쳐내고 나니 남인 관료들의 입김은 더욱 세지고 숙종의 행동도 더욱 과감해지고 거리낌이 없어졌다.

처벌을 요청하는 남인 관료들의 상소 행렬 속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송시열은 먼 제주도로 유배를 당하여 그곳에서 위리안치 형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남인들은 다시 그를 한성부로 압송해 국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인들이 계속 분란을 만들며 상소하자 숙종은 못 이기는 척 남인의 편을 들어 이를 허락했다. 제주도에서 압송되어 뭍으로 올라온 그는 광양에 이르러 수제자인 권상하 등이 영접하였다.

1689년(숙종 15년) 6월 3일, 숙종은 송시열을 사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송시열은 조정의 심문을 받기 위해서 광양을 출발하여 정읍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날 병조 판서 민암(閔黯)은 "송시열이 지극히 흉하고 악함은 국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군주들은 나라를 세움이 인후(仁厚) 하여 일찍이 대신을 국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송시열의 처분을)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영의정 권대운에게 물었다. 권대운은 "송시열의 범죄는 흉악하나,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국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참작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목내선·김덕원·목창명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숙종은 이러한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참작하여 사사(賜死) 하되, 금부도사(禁府都事)가 갈 때길에서 만나는 곳에서 즉시 거행하게 하라."

제주도에서 압송되어 출발한 송시열은 당시 정읍현에 도달했는데, 조정에서 보낸 금부도사를 만나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날이 6월 8일이었으며 이때 나이가 82세였

다. 사관은 송시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사약을 받기 전에 송시열은 제자 권상하(權尙夏)의 손을 잡고 부탁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주로 할 것이며, 사업은 마땅히 효묘(孝廟, 효종)께서 하고자 하시던 뜻(북벌 정책)을 주로 삼을 것이다.(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비록 큰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항상) 주자의 이른바, ‘함원인통 박부득이(含冤忍痛, 迫不得已, 원통함을 품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함)’이라는 여덟 글자를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이 전수하여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괄호 안의 내용은 권상하의『한수재집』「수암선생연보」에 기록된 것임) 또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낳게 하는 이유와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이유는 ‘직(直)’일뿐이다. 공자와 맹자로 서로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곧을 ‘직’자인데 주자가 제자에게 부탁한 것도 이에 벗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도에 유배 갈 적에 일찍이 글을 지어 김장생의 묘소에 제사하여, 나쁜 무리가 화(禍)를 꾸민 전말을 모두 진술하였고, 또 그 부모의 묘에 제사 한 글에 그 평생의 출처(出處)를 두루 서술하였는데, 사실이 매우 상세하며 모두 그의 유집(遺集)에 있다.

1690년(숙종 16년) 10월 22일, 숙종은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였으며, 희빈 장씨는 왕비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할 사람은 조정에 이미 아무도 없었다.